

게리 예이츠 박사, 제12권, 27번째 세션, 스가랴, 1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중인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27, 스가랴, 1부입니다.

이 연구와 다음 연구는 스가랴서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구약성서와 12장에서는 포로 생활 이후의 공동체가 성전 재건 과업을 완수하도록 격려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적 쇄신과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학개는 기원전 520년 8월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는 20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일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은 그들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그와의 관계의 핵심이며, 사람들은 학개의 예언적 메시지에 호응하여 3주 안에 실제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일으키셨고, 스가랴의 메시지 서두에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될 때, 회개의 개념, 즉 돌이키거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히브리어 슈브(shub)는 전체적으로 예언서 문헌에서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12장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일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대체로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 400년의 앗수르 위기, 바벨론 위기, 페르시아 위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예언의 음성을 일으키셨습니다. , 사람들은 대부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본국으로 보내질 때나 미가와 같은 심판의 선지자가 이런 것들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예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12장 맨 처음 부분에는 요엘의 이야기와 그의 사역 중에 일어난 회개가 나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앗수르 사람들과 니네베 사람들이 놀라운 회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실하고 성전 재건 사업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백성들은 이에 반응합니다. 학개가 전파한 지 3주도 안 되어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가랴는 이것을 표현하며 1장 2절에서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느니라.

애초에 이번 판결이 나온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상으로 예언의 말씀에 응답하라는 요구입니다.

새롭게 되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본향으로 데려오시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6절에 다시 옛 조상들의 패역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나의 말과 나의 규례가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12장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설명하였을 때, 그들이 회개하여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과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고, 백성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았고, 그들이 그분께 돌아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 백성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개와 그들의 반응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더 짧은 형태의 학개 사역과 더 긴 형태의 스가랴 사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격려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초기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생각을 할 만큼 영광스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외국의 압제 아래 있었고, 그 땅에는 유다가 생존 가능한 지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낙담한 시기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며, 이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영광과 화려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대략 5년에 걸쳐 이 일을 완수하려면 주님과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역할은 사람들이 그들을 격려하는 도전에 응할 때 재건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원을 공급하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 완전하고 온전하고 최종적인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스가랴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개될 쟁점 중 하나는 이 회개가 여전히 온전하고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회복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의 축복을 부분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종말론적 왕국에서는 아직 궁극적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과 아직의 구별은 실제로 우리에게 스가랴서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의 처음 여덟 장은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충성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9장부터 14장까지는 아직 없는 것과 종말론적인 회복, 그 귀환 이후에 일어날 재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에 대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포로 기간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관해 이야기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뜻을 무시하실 것처럼 보이거나 단순히 그들에게 회개를 강요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씁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적 언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예언적 수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어떤 위대한 일을 고대할 때, 그 약속은 종종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 수사법의 목적은 포로 생활이나 심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정한 언약적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권적이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실 만큼 강력하십니다.

이것이 예언적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아,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의 문제는 제거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성취의 시간이 시작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고대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입니다. 이제 그 성취의 시간이 도래하면 문제는 이 일의 시기,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현 세대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충만함이 됩니다. .

그리고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봅니다.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봅니다. 그러나 8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그들의 길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8장 16절과 1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넷째 달의 금식과 오월의 금식이라 하였느니라 그 달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은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그러므로 사랑과 화평이니라.

그래서 유배의 슬픔이 축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16절에 보면, 서로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한 재판관을 하여 화평하게 하라. 너희는 마음에 서로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내가 미워하는 이런 일을 인하여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포로 이전에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로 바로 돌아갑니다. 백성이 정의 실천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그 축복은 온전히 체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방법과 방식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백성들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초기 단계에 도래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나중에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완성의 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현재가 아닌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누리며 아버지 우편에 오르시기까지 행하신 일이 그 근거니라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골로새서로 옮겨졌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왕국도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실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면서 살고 있는 동시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현재에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 귀환은 아직도 그들을 주님께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설교를 통해 이해한 바와 같이, 재림 이상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언적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려면 단지 70년이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7년을 70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든, 아니면 단순히 길고 긴 시간에 걸쳐 말하는 묵시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든, 다니엘은 최종 회복이 단지 70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회개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축복하시지만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재건을 더욱 격려하고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519년에 스가랴에게 일련의 밤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기원전 519년 2월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재건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야간 시력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해석상의 어려움을 제시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와, 상징이 뭐죠? 우리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묵시문학과 매우 유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일종의 묵시록적 언어의 한 형태나 유형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의 모든 어려움과 차이점, 뉘앙스, 그리고 이 8가지 비전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 속에서 실제로 각 비전에는 4~5가지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포로로 보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상황과 열방 사이에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실 것이며, 그 중 일부에는 예루살렘과 꼭 필요한 성전의 재건과 갱신이 포함될 것입니다.

땅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사회적 불의는 포로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포로 이후 시대에도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이 핵심적인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부여할 지도력을 예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우리에게 해석상의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처음으로 읽거나 한동안 읽지 않았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비전이 전달하려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측면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일을 성공시키실 것이라는 격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17절의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이며, 화석류나무는 덮개와 은둔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천사이고, 또 다른 천사 무리가 세상의 사방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찰하고 세상이 평화롭고 화목한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보안.

이것의 문제가 되는 측면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거나 그들에게 패배와 포로의 모든 공포를 안겨준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이들 국가들은 편안하고, 왜 이러한 안보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질문을 하여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지난 70년 동안 진노하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언제까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은혜롭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과 너희를 괴롭게 하고 학대하는 나라들을 위하여 나는 심히 열심이 있느니라. 내가 나라들을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반전을 가져오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천사가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께 상기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맏소사, 우리는 그 기간의 끝에 와 있습니다. 586년부터 520년까지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 거의 70년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찍이 백성이 땅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는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도 그 가운데 속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천사 모두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에 비추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나는 나의 약속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헌신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이행할 것이다. 이사야 62장에서 주님은 심지어 내가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파수꾼들이 스가랴와 다니엘의 관점에서 볼 때 천사의 인물인지 예언적인 인물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70년에 관해 내가 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벽에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볼 때, 다니엘이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여 천사들이 주님께 그것을 상기시켜 주도록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고대하고 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이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니엘과 이 천사들이 주님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추종자이자 하나님 왕국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그 왕국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기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왕국 사업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하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축복을 베푸시는 시기는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그 약속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일의 일부가 되어 왕국과 하나님 약속의 최종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가져오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70년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네 뿔과 네 장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네 뿔은 다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적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나 네 가지 다른 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네 뿔이 나침반의 네 지점, 즉 북쪽, 남쪽, 동쪽, 그리고 서쪽. 동물의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뿔, 구원의 뿔로 묘사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번은 한 무리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려고 할 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뿔 달린 투구를 쓰고 뛰어다니면서 싹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들에게 행하라. 그래서 동물의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네소타 바이킹스 축구 헬멧이나 세인트루이스 램스 축구 헬멧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약속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네 뿔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인은 이 네 개의 뿔을 잘라서 쓰러뜨릴 도구나 도구, 무기를 고안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대항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숫양이나 뿔 가진 짐승과 같은 힘을 가졌던 이 나라들, 이 적들, 이 군대들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짐승에게서 나오는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들 제국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처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타락과 패배와 멸망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는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측량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성벽 재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하려고 나가자 천사가 그를 만나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 도시의 인구는 너무 많아져서 성벽이 그 인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도시 주위에 보호 성벽을 두는 대신, 주님 자신이 그 도시를 보호하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적군의 침략을 막는 불 성벽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적 언어로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 60장은 외국인들이 와서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예언적 구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445년에 이어진 귀환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오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허물어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할 것을 그의 마음에 특별히 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실행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성벽이 없는 도시는 끊임없이 적의 공격에 취약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언어는 분명히 이상적이고 수사적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 곧 돌아올 백성의 수를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벽이 재건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극적인 보호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성벽은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전이 강조하려는 것, 즉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실 안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비전에는 현재와 아직 아닌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들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까운 장래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행하실 심판이니라 그러나 이 책의 후반부에서 더욱 완전하게 전개될 아직은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왕국에서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이상입니다. 온전히 안전하고 온전히 안전하며 여호와께서 그 성 주위에 불성곽이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의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소인인 사탄이 잠시 후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지적하고 대제사장의 옷이 오물과 배설물로 덮여 있는 것을 보는 거의 일종의 법적 시나리오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와 제사장들과 백성과 지도자들은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두 더럽혀졌습니다. 선지자들이 제사장 직분의 부패에 관해 이야기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인 히브리어 사탄은 여기서 타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전이 있지만 자격을 갖춘 신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주님,

여기서는 확실히 여호수아 자신의 개인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의 행위로 제사장에게 새 옷을 제공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깨끗하게 하사 주 앞에서 섬기며 설 수 있게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며 제사와 기도와 백성을 가르치는 일과 훈계를 제사장 직분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롭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제사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세요, 그 더러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도를 행하고 내 직분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있는 이들 가운데 당신에게 접근권을 주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친구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은 표징인 사람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신권을 위한 새 의복을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봉사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는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네 뒤를 이을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신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정하신 올바른 대표자가 되면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내 앞에서 백성을 섬기는 직분을 네게 주실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시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훨씬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종인 가지를 가져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브랜치를 언급할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선지자 스가라는 자신보다 앞서 있었던 예언들과 포로 이전 기간이나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에 대해 다시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위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의로운 가지는 공의와 공의와 평화로 사람들을 다스릴 미래의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왕이 결코 의로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는 예언은 미래의 이상적인 다윗 왕조의 통치자, 미래의 메시아가 참으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그루터기로 만드실 것이지만,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 것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가지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부는 다윗 집의 부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을 알려주는 또 다른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이사야 4장에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실 풍요와 농업적 번영과 생산성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가지에서 상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한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를 은혜롭게 제사장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가지, 즉 제사장직과 왕권의 역할을 함께 연합할 다윗의 집에서 나온 의로운 가지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대표하는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역할은 하나의 개인, 지부,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로 융합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현재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하고 계신 일은 다윗의 집의 회복과 관련하여 아직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에는 가지와 제사장 직분과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나는 그 구절을 보고 싶고 우리는 같은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의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포로 중에서 데리고 그 날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가라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권에 거의 왕권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가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가 왕의 영광을 받고 자기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니라. 그의 보좌에는 제사장이 있을 것이며 그 사이에는 평화의 회의가 있을 것이며 그 면류관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서 도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구절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권을 받았지만 그는 또한 주님의 집을 건축할 지파를 대표합니다.

현재 다윗 가문의 대표자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지의 약속에 대해서는 지금의 측면이 있고 아직은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룹바벨 자신이 가지의 최초의 성취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은 인물이 있는데, 그는 여호수아나 스룹바벨과는 다른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래의 메시아가 오실 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알게 되면,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쿰란에는 두 명의 메시아가 있었다고 믿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텍스트 증거가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 메시아가 있었고 메시아가 될 왕족 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러한 역할이 예수님께 융합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로기 이후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해 제공되는 이중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축복하고 회복시키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사용하여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하실 일을

예표하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일과 대제사장의 새 옷에 관한 이 환상에 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에게 옷을 제공하는 일이 토라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복이 제공되었는데, 우리는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서 제사장이 봉사하도록 성임될 때 이것을 봅니다. 그는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특별한 역할을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6장에서 우리는 속죄일에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예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는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터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 두 가지 행사가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는 신권이 다시 시작되고, 신권의 봉사와 사역이 제2성전에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의 안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제사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생각나게 하는 정결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제사장은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더러움과 죄의 더러움이 제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니 또 다른 해.

우리는 스가랴 3장의 이 구절에서 그와 동등한 어떤 것에 대한 의식과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 보다(Mark Boda)는 이 네 번째 환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구절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이사야 4장 6절까지 보면 교만하고 교만하여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시온의 부자들의 호화로운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옷을 벗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관과 머리에 있는 수건을 벗겨 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더러움을 제하실 것이며 그의 심판의 불이 궁극적으로 더러움과 찌끼와 땅의 죄악과 땅의 가지를 제하리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날에 주님은 번영하고 번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Boda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적어도 그 구절에 대한 암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에게 임한 포로의 심판의 더러움이 없어져 가는 것이라 정결케 하는 심판의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주님의 가지와 관련된 축복이 실현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에서 여호와와 그의 가지는 축복과 번영, 그리고 땅의 비옥함에 대한 언약적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지는 다윗의 집과 보좌에 오르게 될 회복된 미래의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그 두 가지가 모두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는 제사장이 제공하는 새 옷에 대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댕글 하나 더. 우리는 여기에 비난이 있거나 여기에서 평준화되고 있는 비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 사탄, 사탄, 고발자. 이제 계시록의 진행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인물이 실제로는 사탄이거나 마귀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기서 보이는 인물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주님 앞에 서서 욥을 참소하는 사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욥을 보고 주목해 보셨나요? 주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실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그를 축복한 모든 방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인 사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구약의 계시와 관련하여 그들은 그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나는 신약성경의 더 깊은 계시에 비추어 여기서 점들을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악마이고 이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 인물에 대한 이해가 덜 명확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개인 이름이 아닌 직함입니다. 여기서 이 인물의 역할은 그가 신성한 조연자, 즉 검찰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죄를 짓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이전에 이 인물에게 부여된 정당한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임무는 세상을 조사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건과 사례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여 세상이 그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 합법적인 역할을 포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모두에게 반대하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과 일부 통역자들은 단지 여기서 하늘의 보좌를 섬기는 합법적인 검사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성서의 후기 계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사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의 이야기와 스가랴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 이는 단순히 적법한 검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 구절과 욥의 구절 모두에서 사악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그는 욥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성품에 대해서도 암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구약의 관점에서 그를 마귀, 사탄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악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가 원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개인이나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수 있는 사례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적법한 역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에서 이 역할을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 성서. 여러 번, 사탄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이것이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간 대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적대적인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봅니다.

우리는 이후의 계시에 비추어 이것이 사탄임을 이해합니다. 그가 이 고소를 하자 주님은 그를 꾸짖으시며, 나의 은혜로 내가 제사장 직분을 깨끗하게 하였고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새 성전에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환상으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두 감람나무와 금 등대에 대한 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이것의 기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능력을 주어 그들이 백성을 이끌고 성전 재건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이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성전과 성막에 있는 등불과 메노라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상징하기 위해 거기에 있을 등대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역대하 4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실제로 열 개의 등대가 있었다고 알려 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등대는 성전의 메노라로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이루는 노력,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개에 대한 논의에서 성전 재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 특별한 말씀을 주시나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스룹바벨 앞의 큰 산이여 네가 평지가 될 것이요 외치는 소리 가운데 머릿돌을 옮기시리라 은혜, 은혜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에게 능력을 주어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이 일은 완료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큰 산은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재정적 부족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땅으로 돌아와 도시를 재건하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땅 안에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러한 장애물은 종종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그들이 15년 동안 미뤄두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당신 앞에 있는 이 산들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이 격려의 말씀이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느니라.

그분의 손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는 자는 기뻐하며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 작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섯 번째 환상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설명되어 있는 두루마리는 가로 30피트, 세로 15피트입니다. ESV 연구 성경은 이것을 묘사하거나 이것을 날아다니는 광고판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두루마리이고 나는 이것이 이것을 상상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는 광고판이 있는 걸까요?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시야 시대의 계명 두루마리를 기억하십시오.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언약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그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대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또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언약의 저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광고판의 크기뿐만 아니라 양면에 글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언약의 저주를 경험할 필요가 없도록 언약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엄청난 경고가 있습니다. 학개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을 때, 성전을 완공하지 않았을 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농업 박탈이라는 언약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그들은 포로기 전 기간에 보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곡식과 포도주와 포도나무를 농치고 있었습니다. 이 큰 그림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왔고 포로 생활이 끝났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판단이 있을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사역했던 선지자 요엘과 말라기를 살펴보면, 계속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환상 중 가장 이상한 일곱 번째 환상은 5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바구니 안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관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보완합니다. 나는 여기에 바벨론으로 더 유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죄를 대표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여자는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무게가 70~75파운드에 가까운 금속 뚜껑을 뚜껑 위에 얹습니다. 5분의 3 부셀에 해당하는 이 바구니 안에 이 여자가 담겨 있습니다.

금속 뚜껑은 그녀가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다음 황새 날개를 가진 두 명의 천사상이 바구니를 들고 바벨론으로 날아갑니다. 나는 여기에 제시된 이미지 속 그림이 다시 한번 유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땅의 악과 죄를 대표하는 이 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확실히 교훈을 얻었고 그들의 죄악된 길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불의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 충실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더 유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비전, 그리고 다시 회복과 갱신의 그림을 완성하는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가까운 장래에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대의 병거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비전은 분명히 1장에서 네 마리의 서로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정찰병의 비전과 유사하고 복엔드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서로 다른 색깔의 말을 끄는 이 네 대의 병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침반의 서로 다른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건축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일단 건축을 시작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축복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재건의 한 가운데서, 그에 따른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회복과 축복을 가져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격려적인 메시지는 역사상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언약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대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과 미래 사이에 살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에서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27번째 세션, 스가랴 1부입니다.